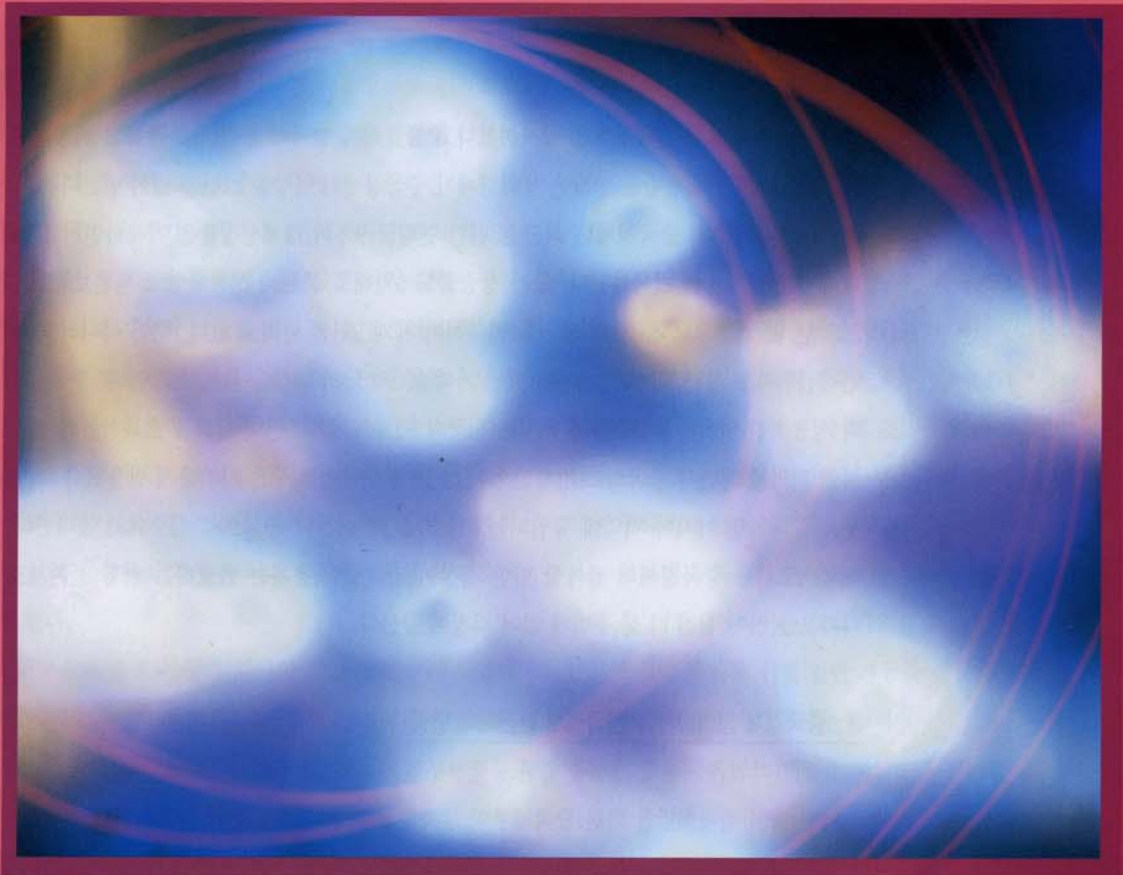


산학리뷰

2004년 7월 / 제15권 제7호 (통권 159호)



CONTENTS

2004. **7**

- 2 • **산학칼럼** / 중국경제발전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지역기업의 대응전략
- 6 • **경영 · 기술정보** / 직물수출확대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해외공동마케팅의 당위성
- 10 • **대덕단상** / CIA, Terrorism & Six Sigma
- 13 • **제170차 월례세미나** / 고유가 시대의 기업경영
- 18 • **짧은 상식, 긴 여운** / 조물주가 빠뜨린 유일한 창조물
- 20 • **용역보고** / 지방은행의 존립근거와 역할
- 27 • **연구원 소식** / 회원동정
- 30 • **신착도서목록**
- 31 •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중국경제발전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지역기업의 대응전략

신주식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I. 서론

최근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하자 한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외환시장이 휘청거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경제가 중국경제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최근 25년간 연평균 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15%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물가 상승률도 5%대로 묶는데 성공하였고 외환보유고도 2003년 말 기준으로 4,033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도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매년 거의 5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성공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중국의 FDI 누계가 5천억 달러를 초과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의 15% 상당의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 유입되는 FDI의 50% 이상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한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회로 작용하는 면보다는 위협의 존재로 다가오는 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걱정이 앞선다.

II. 중국경제 정책방향과 한국경제 발전에의 영향

1. 외자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방향

최근 들어 경제개발을 위한 중국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작업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인당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한 내수시장을 중국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전의 위밍업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WTO가입에 보조를 맞추면서 대외개방을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외국투자기업들로 하여금 중국내수시장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유통, 물류 및 배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부문의 개방확대이다. 또한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를 중국과의 FTA협정을 통해 중국경제의 영향권 하에 들어오도록 하고 이들 시장들이 중국시장과 밀접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시장단일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만사항이었던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 비율문제, 경영 및 생산계획의 대정부 보고 등 번거로운 의무조항을 삭제, 폐지하

최근 중국정부가 긴축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하자 한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외환시장이 휘청거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경제가 중국경제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경제의 활목할 만한 성장이 기회로 작용하는 면보다는 위협의 존재로 다가오는 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걱정이 앞선다. 중국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방위 유치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테크 제품과 첨단제품에 대한 투자유치에 그 초점을 맞추는 양면작전을 쓰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일부 하이테크 산업을 제외하곤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중국진출 러쉬를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있고 외자기업의 수출의무를 수출장려로 전환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종전의 양적인 규모의 투자에서 질적인 효율위주의 투자로 전환하면서 자국 산업정책과 외자기업 투자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상해지역 등 일부 선진발전 지역에서는 종전의 무차별 외자유치 전략을 버리고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 계획에 맞추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이나 업종을 선택하는 이른바 선별적 외자유치 전략을 구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잉투자 품목이나 비첨단기술산업 품목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을 가하고 전략적 품목의 경우엔 외국기업의 투자를 배제하기도 한다.

귀금속과 주요 광물의 탐사와 채굴 또는 가공사업에서는 외국기업의 독자투자를 금하고 철저하게 합자형태로 진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민족기업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산업에 대한 원부자재의 국산화 조달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외국 투자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피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정부의 일사불란한 지휘아래 중국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각 업종별로 협력관계 및 공동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산업간 기업경영 재편을 강행함으로써 중국기업의 외자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형국

을 조성하고 있다.

2. 중국경제의 발전전략 방향에 따른 우리경제에의 영향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방위 유치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테크 제품과 첨단제품에 대한 투자유치에 그 초점을 맞추는 양면작전을 쓰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투자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서부지역과 동북부 지역에서는 무차별 투자유치 전략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고 상해 등 연해지역에서는 고급기술을 요하는 하이테크 산업의 집중 유치를 위해 일반 경공업 생산기업의 진출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한국기업들은 일부 하이테크 산업을 제외하곤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중국진출 러쉬를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상대적으로 비싼 임금을 피하고자 중국시장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있고 큰 소비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떠나는 기업들도 있으며 해외 바이어의 요청에 굴복하여 중국에 생산기지를 갖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활발한 중국진출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한국에서의 산업공동화 현상을 우려하기도 하고 지나친 중국시장 의존을 걱정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기업을 포함한 과도한 외자기업들이 한정된 시장 수요를 두고 과도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관련기업 모두

가 적자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경제의 산업구조상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한 일부 산업분야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고전으로 인해 한국투자기업의 중국시장에서의 퇴출 또는 기업재무구조 악화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산업 중에는 가전제품 분야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중국 국내시장 장악 및 이들의 전 세계 수출시장 장악이 가져올 수 있는 대중 투자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판매 부진 및 한국기업의 수출부진 현상의 가능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마이크로 오븐을 비롯한 가전제품과 일반 경공품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제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둘째,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의 가능성이다. 한국시장에서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대중 투자 한국기업의 제품이 부메랑 효과로 인해 한국시장으로 역수출되어 한국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국내기업이 중국시장용으로 값싼 원부자재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중국산업의 수요에 특화되어 고기술제품 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셋째, 중국경제의 부침에 따라 한국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한국경제가 불안정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만수출의 부침이 대만의 대중 수출 의존도에서 받는 영향력을 99%로 평가했으며 일본의 경우 73%, 한국의 경우 40%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골드만 삭스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내수 증가율이 1% 하락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2.7% 감소한다고 한다. 대만의

2.5%, 싱가포르의 1.6%, 일본의 1.4%에 비하면 한국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9%에서 7%로 떨어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20억 달러 감소한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의 부침에 따라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이다.

넷째, 한국의 주력수출 제품들이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제품에 완전히 밀리게 됨으로써 이제까지 한국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왔던 수출부문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어 한국경제가 성장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성장잠재력의 감소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경제의 장기간의 성장멈춤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지역기업들의 대응전략

중국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의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해야 할 대처방안 또는 대응전략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중 투자에서도 지역경제와의 직접연계 관계를 항시 고려해 가며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완제품 공장을 지으면 지역에서 반제품을 가져가도록 해야하고 반제품 공장을 건설하면 원료와 자재는 지역에서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경제의 생존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 실시한 이후 줄곧 변화와 개혁을 즐기게 추진해 왔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서의 각종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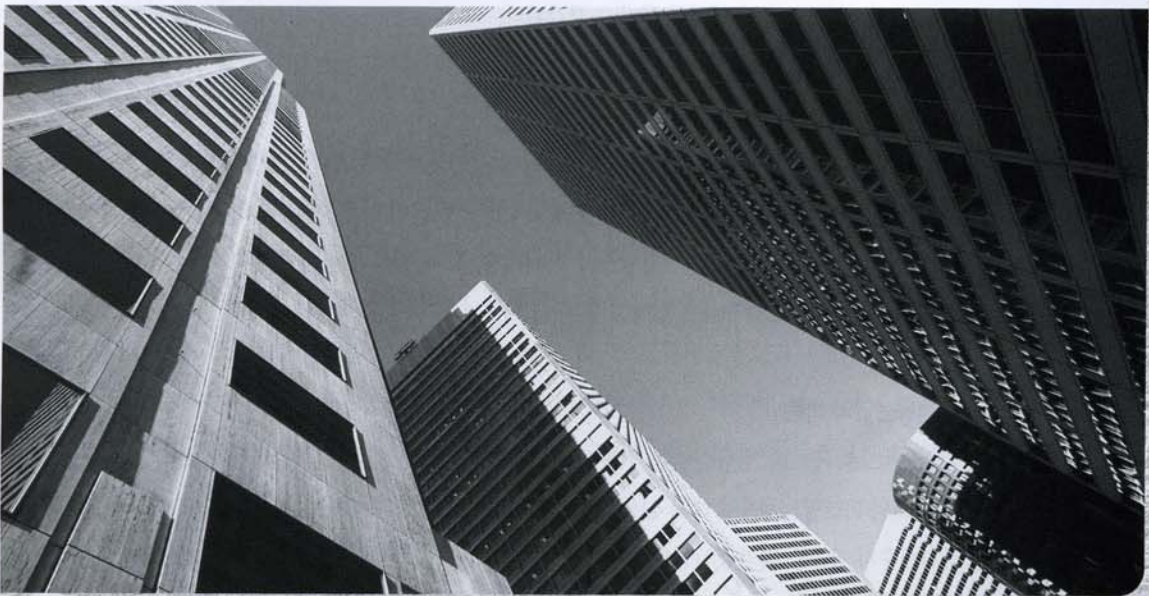
및 규정이 수시로 변해왔고 개선, 변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중국시장에서의 투자환경도 급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지역기업들이 이런 상황변화에 재빨리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배워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점진적인 전략이야말로 지역기업들이 중국시장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실패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80%가 제조업 분야이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지역기업들 역시 이제까지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치중하여 중국투자를 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제조업의 경우엔 투자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철수 또는 업종전환이 쉽지 않아 비상대책 마련이 어렵게 된다. 우선 판매분야에서의 경험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전공분야인 제조업과 관련된 소규모 유통, 판매, 운송, 배송, 물류 분야에서 사업경험을 축적하면서 시장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난 다음 제조업으로 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해당 제조업에 진출하기 전에 그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소규모 서비스업종에 먼저 진출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시장 진출을 일종의 장기전으로 보고 매년 소규모 손실은 감내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적어도 6~7년의 적자를 미리 계산하고 이에 대한 자금 및 인력상의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 자가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면서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누적적자를 완전 해소하는데 적어도 5~6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기업을 선도기업으로 하고 그 뒤를 수 십개의 중소기업들이 선단을 구성해 진입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쉬워진다. 지역의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적어도 대기업에 반제품이나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사업기회가 있다면 이는 사업성공의 절반을 확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직물수출확대 및 구조고도화를 위한 해외공동마케팅의 당위성



정기수 | 대구·경북견직물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

□ 서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여야만 존속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한다. 21C 기업환경을 요약하면 3C 즉 급격한 변화(Change), 치열한 경쟁(Competition) 그리고 소비자가 왕(Customer)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급격한 변화(기술, 제품구조, Life cycle)는 기업시스템의 유연성(Flexibility), 치열한 경쟁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우위전략(Competitive superiority), 그리고 소비자 시장은 고객감동경영(Customer Oriented R&D and management)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 섬유산업의 역사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의 동기도 직물제조방법의 기계화에서 출발했으며, 섬유산업은 국가산업발전의 모태였다. 이후 섬유산업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을 거쳐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이전되어 왔으며, 현재 질적 우위는 프랑스와 이태리가, 양과 질의 평균은 일본과 한국이, 양적우위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가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섬유산업의 비중

국가적으로 볼 때 섬유산업은 16년간 무역수지흑자를 100억불 이상 유지한 산업이며, 고용의 14.5%(약40만명), 총수출액의 11%(187억불)를 점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전국 직물수출의 75%, 직기대수의 80%, 염가공시설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지역 업체수의 30%, 제조업체 종업원의

25%. 제조업 생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 직물산업의 환경

대구·경북 직물업계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모두가 장기간의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을 우려하고 있으며, 나타난 결과만 갖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근본원인을 찾아 이를 조기에 극복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만들면 팔리는 시대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과,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지 않은 것에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내부역량 비축 부족(단순제품, 대량생산)과 70% 이상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영업환경에서 지금까지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을 주도하던 종합상사나 섬유 대기업의 해외 거점 철수 축소로 인해 기존 시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생각한다.

□ 대응전략

중국의 WTO 가입과 2005년 섬유 Quota 제도 폐지, 신흥섬유거점 부상 등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야말로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변화의 시대인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Market Oriented 제품은 기업, 연구소, 학계가 전략산업기획단과 같이 개발할 것이며 해외시장 개척은 기존 지방정부나 KOTRA 등에서 시장개척단 등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

□ 해외공동마케팅의 추진배경

지역 직물업계의 90% 이상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해야 하는 환경에서, IMF 이후 해외수출을 대행하던 대기업이나 종합상사의 구조조정 결과로 해외진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와 같이 견직물조합은 2002년 해외공동마케팅의 시급함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호소하고 자력으로 중국에 첫 거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차례 해외공동마케팅의 시급, 당위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지원을 호소하였다. 그 결과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에는 해외공동마케팅이 추가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금지원이 확정단계에 있으며, 견직물조합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견직물조합이 해외공동마케팅을 위해 추진한 활동은 아래와 같다.

○ 견직물조합의 해외공동마케팅 추진 현황

- 중요섬유교역중심지의 거점 확보를 위한 현지출장 시장조사
 - 중국,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브라질, 방글라데시 등 현지조사 완료
- 중국 교두보 확보 (Korea Textile Center In China 오픈) (2002. 8. 15)
 - 중국 한국 업계대표 100여 명 참석, 2004년 6월 현재 약 115만불 수출달성
- 중국 전시회 참가를 통한 Made In Korea 홍보
 - 전시회 (북경 인터텍스타일 전시회 등 11회 공동관 참가, 참여업체 23개사)
- 해외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net-work 구축
 - 천진복장상회, 러시아경공업협회, 상해복장상회 등과 상호교류 협약 체결
 - 영대, 계대, 영진전문대학 등과 해외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사업 협약체결
 - KOTRA 대구경북무역관과 해외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 해외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올스트(OLLST)' 브랜드 런칭 (2002. 10. 15)
 - 상해 힐튼호텔 - 한국패션소재 제안전, 한중 비즈니스클럽
- 해외공동마케팅지원사업을 위한 온라인 웹 사이트구축 및 활용 (2002. 8. 6)
 - (www.maintextile.com)
- 2004년 하반기 전시회 참가계획
 - Inter Textile Milano 단체참가 주관(산업자원부 지원)
 - 러시아 TEX-TIM EXPO 단체참가 주관(중소기업청 지원)
 - Intertext Shanghai 공동부스 참가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특히 영업은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더불어 고객을 만족시키고 나아가서는 감동을 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문화와 관습이 다른 해외영업은 일회성방문이나 전시회로는 결코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더욱이 중간제품인 직물은 감성적인 요인이 있으므로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치열한 시장 확보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견직물조합은 해외공동마케팅 기본전략을 아래와 같이 구상하고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직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해외공동마케팅 단계별 전략


- 1단계 : Infra 조성 및 Supply Chain 구축
 - 주요 유통거점에 Korea Textile Center 건립 (상설전시관, e-business site 및 사무실 등)
 - 현지 전시회 참가
- 2단계 : 플랫폼 구축 및 supply chain의 질적 고도화

- 현지 유통, 의류업체 공략 (현지 다운스트림과의 전략적 제휴, 목표시장 거래선별 공략 전략 수립 및 추진)
- 전문지 등에 made in korea 우수성 홍보 및 공동 Brand 광고를 통한 propaganda 강화
- 3단계 : Global Partnership 구축
 - 정선된 유통, 의류업체와의 업체간 인적 net-work 구축
(전시회 등에 상호방문, 교류를 통한 business net-work 구축)
 - 현지고객 맞춤형 패션소재 설명회 등 차별화 전략 실천
(선도업체의 현지 시장용 신제품, 차별화제품의 특수 거래선 공략 강화)
- 4단계 : 소재 마케팅 활동 강화
 - 현지 시장정보의 실시간 제공, 현지 유통, 다운스트림의 DB 구축 및 업체에 선별제공, 현지 시장 지향제품의 개발 시스템 구축에 노력
(개발연구원, 염색연구소, 패션센터 등에 차별화, 신소재, 적극소개 및 이들을 연계한 현지 시장 공략형 제품개발 시스템 구축)
- 5단계 : On line 마케팅 및 e-business 활성화
 - 현지 산지의 정보 net-work 구축을 통한 trading의 활성화
 - 섬유무역 첨단 시스템 도입을 통한 e-business 확대로 QR 정착 및 만족도 제고

□ 맺음말

대구·경북지역의 섬유직물산업은 전국 화섬직물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수출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종합상사나 섬유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외지점철수, 축소로 인해 기존 거래선의 상실, 신규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극심한 내수 부진이 겹쳐 경영환경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더욱이 중국, 동남아 국가 직물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국내 의류 제조업의 해외이전, 특히 내년부터는 쿼타제도의 폐지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상실전시·홍보 및 섬유마케팅컨설팅을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의 거점이 될 해외 인프라를 구축하여 현지화 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현지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기획생산 및 기획판매의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업체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Potential (전문인력, 자금력, 언어능력 등)이 극히 미약하므로, 섬유직물업계의 중심단체인 조합이 주도적으로 업체들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총체적으로 지역 섬유직물의 수출을 확대하는 해외공동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 섬유직물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CIA, Terrorism & Six Sigma



김철의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정보팀장 · 6시그마 Master Black Belt

2001년 9월 11일은 미국 뉴욕의 심장부 세계무역센터(WTC)를 GROUND ZERO로 만들어 버린 아 비규환의 날이자, 세계 최강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통탄의 날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기 회로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은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하였고 최근의 이라크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9.11테러가 발생된 지 1년 후인 2002년 10월 30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 USA TODAY는 경영기법이 사 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면서, 연방정부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6시그마(Six Sigma)를 도입할 수 도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미국 CIA가 민간 경영혁신 기법인 Six Sigma를 도입하여 테러공격을 방지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6시그마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이클 해리 박사는 그것이 가 능하다고 한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6시그마를 달성했을 경우 미국을 1,800배나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GE의 전임 CEO이자 6시그마를 GE의 조직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게 했던 잭 웰치 는 자신을 “6시그마가 테러에 대항하여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려깊은 낙관론자 중의 한 사람” 이라고 하였으며, 델 컴퓨터의 CEO 마이클 델은 “6시그마는 미국정부에서도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한다. 6시그마 전문가들은 9.11테러와 같은 사건들은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취해져야 할 수많은 예방조치들 중에서 하나의 조치가 잘못(a breakdown in the millions of frequent and mundane preventive steps)되어 발생된 대재앙이라고 보고, 이러한 조치들은 힘들고 지루한 일이지 만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6시그마 전문가들은 미국내 안전업무를 취급하는 행정 기관들을 대상으로 계속 컨설팅을 해 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CIA에서도 6시그마를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6시그마에 대한 개념과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시그마는 1980년대말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 처음에는 제품의 불량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조부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품질향상을 위한 기법을 넘어 서비스, 연구개발, 공공부문 등 전 산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 영혁신 전략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마이클 해리는 6시그마를 통계적 척도(statistical measure)이 자, 경쟁우위를 갖게 해 주는 기업전략(business strategy)이며, 기업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철학

6시그마를 통계적 척도(statistical measure)이자, 경쟁우위를 갖게 해 주는 기업전략(business strategy)이며, 기업내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철학(management philosophy)이라고 정의하면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working harder)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working smarter)이라고 한다. 6시그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영혁신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비용절감, 경쟁력 향상, 기업문화의 획기적 변화 등을 가져오고 있다. 6시그마라는 민간의 경영기법이 공공부문에 적합한 것이라면 이를 과감히 수용하는 적극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management philosophy)이라고 정의하면서, 6시그마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working harder)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working smarter)이라고 한다. 6시그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영혁신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비용절감, 경쟁력 향상, 기업문화의 획기적 변화 등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5개 기업 중 하나가 6시그마를 도입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한국능률협회가 국내 3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62개 기업에서 6시그마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시그마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까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기업은 1878년 에디슨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GE. 매출액이 1,300억 달러가 넘는 초우량 기업인 이곳에서는 6시그마가 기업의 DNA를 바꾸었다고 말할 정도로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1년 TFT-LCD의 가격이 전년보다 40% 이상 폭락하여 대만의 제조업체서는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삼성전자에서는 손실이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6시그마 때문이었다고 한다. 6시그마가 기존의 경영기법들과는 다른 점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 영역을 확대시켜가고 있다는 것이다. LEAN, SCM, CRM, BSC, EVA 등과의 통합,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혁신기법이 탄생하지 않고 있어 생명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마이클 해리 박사는 기존의 6시그마 운동을 제1, 2세대로 간주하고 향후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가치혁신”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제3세대 6시그마로 명명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6시그마를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아직 이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2001년 철도청에서 최초로 공공부문에 6시그마를 도입한 이후 2002년의 서울도시철도공사, 2003년의 대구시설관리공단, 우정사업본부 등이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중 기업적 요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240개소에 이르며 그중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은 101개소, 지방공기업은 139개소이다. 이들 기관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6시그마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전략으로 도입될 경우 매우 큰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러한 기업적 요소를 가진 기관들이 최근 6시그마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다소

희망적이다.

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시그마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6시그마는 민간의 경영기법이지 행정에는 적용가능성이 없다는 고정관념과 무관심, 그리고 통계기법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의사결정권자들의 의지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6시그마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접 6시그마를 도입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Fort Wayne 市가 그러하다. Graham Richard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2000년부터 6시그마를 도입하였다. 3년간 21명의 블랙벨트(Black Belt)와 40명의 그린벨트(Green Belt)를 양성하였고 60개의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3백만 달러의 경비를 절감하였다. 프로젝트 개선사례는 서비스 분야와 인허가 분야 등이 망라되어 있어, 행정기관에서도 6시그마를 도입할 수 있다는 좋은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소방서의 재검사율을 매년 23% 향상시켰고, 소규모 도로파손으로 생긴 구멍 메우기 작업을 24시간 내에 처리하는 비율이 77%에서 98%로 향상되었으며, 신축건물 허가에 60일이나 소요되어 도시 경쟁력이 저하됨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엄청난 리드타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Fort Wayne 市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21세기의 패러다임은 민,관의 경계를 퇴색하게 한다. 민간의 경영기법이 공공부문에 적합한 것이라면 이를 과감히 수용하는 적극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혁신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정부혁신운동에 6시그마를 도입하면 어떨까?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6시그마를 도입해 비용절감과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한다면 그 혜택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SEMINAR

제 170 차 월 레 세 미 나

고유가 시대의 기업경영



황두열 | SK(주) 상임고문



편집자 주 : 지난 6월 24일(목)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70차 월레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I.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 1차 에너지별 의존도(2003년도)

- 1차 에너지원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0년대 이후 약 40~60%를 등락하였고 지난 '94년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에너지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 배관망 확충 및 산업·발전용 연료 수요증가로 LNG의 소비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석유	석탄	원자력	LNG	수력·기타	계
47.6%	23.8%	15.1%	11.2%	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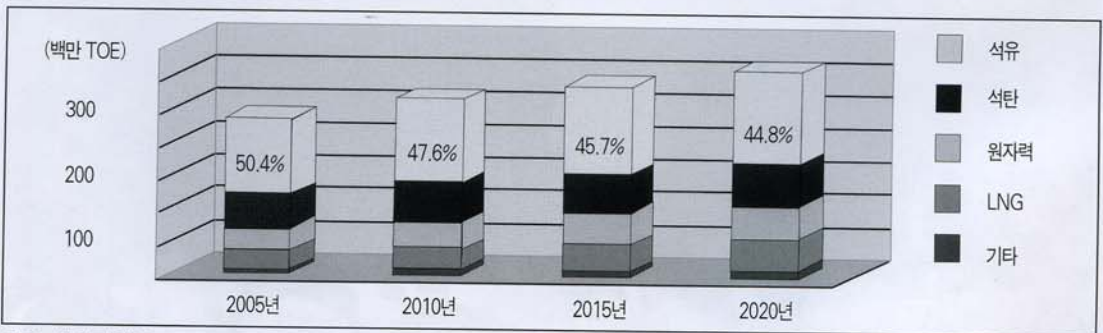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열량환산 기준)

- 1차 에너지원 수입현황(2003년 기준)

- '03년 우리나라의 연간 에너지 총 수입액 중 석유가 약 80%를 차지(수입액으로는 약 310.3억\$)

- 1차 에너지원별 장기 수요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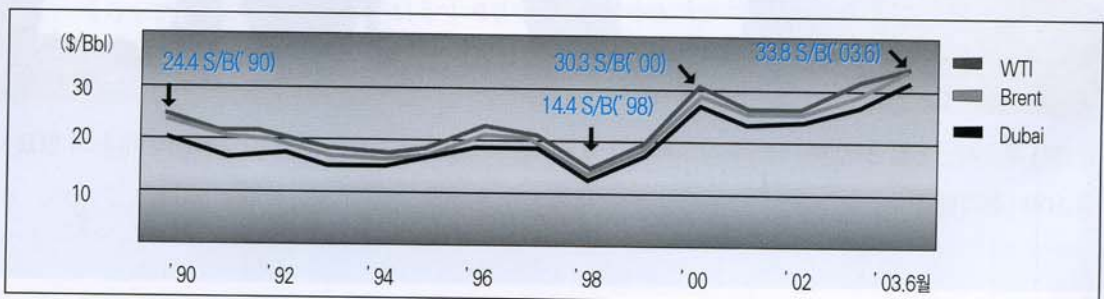
- 석유 수요와 에너지 총수요 모두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단, 석유 수요의 증가세가 다소 완만함에 따라 2020년 석유의존도는 약 44.8% 예상



자료: 산업자원부

II. 고유가 시대의 도래

- 90년대 이후 국제유가 추이



SEM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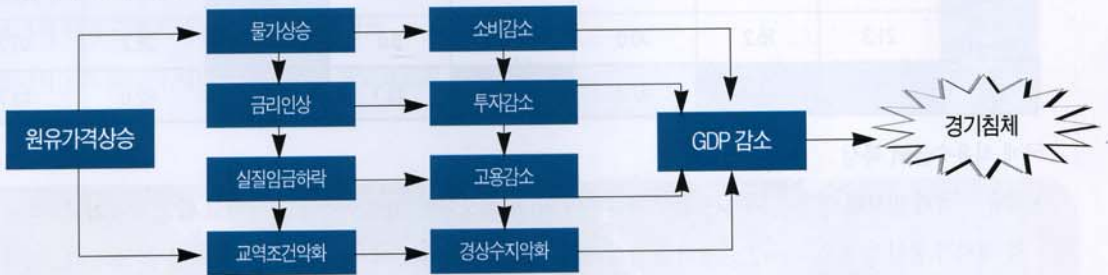
- 최근 고유가 상황의 배경

- 미국의 휘발유 재고 감소 : 최근 미국의 경기호조에 따른 휘발유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고수준은 낮은 상태, 석유시장의 글로벌화와 IT 발달로 미국의 재고감소 발표가 국제유가에 결정적인 영향력 발휘
- 중동지역 불안 : 이라크 사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최근 사우디 등 산유국 석유 시설에 대한 테러발생 우려 등이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달러화 약세 현상 지속 : 달러화 약세에 따라 비산유국의 전반적인 구매력 약화, OPEC은 이에 대응하여 감산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의도적인 유가인상을 유도
- 국제 투기자본의 석유시장 유입
- 중국의 석유수요 급증 : 2000년 이후 중국경제 급성장에 따른 원유 수입량 급증세 (표 참조)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10	2020	2030
석유소비	441	499	503	536	700	940	1,200
원유생산	321	325	331	339	330	240	220
석유수입	115	177	180	204	420	730	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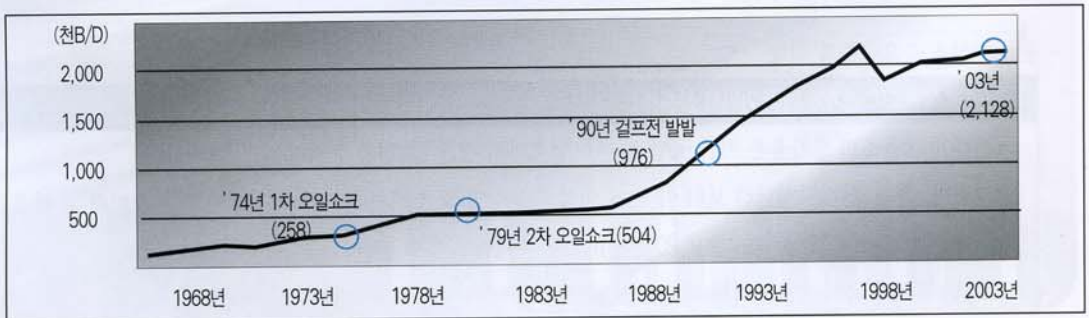
자료 : World Oil Trade

- 고유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도별 국내 석유 소비량 (1968 ~ 2003년)

- 대체재가 부족한 석유의 경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비탄력적인 수요의 움직임을 보이는 바 외부의 위기로 인한 국내 충격이 막대함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Gulf戰
기간	'73.10~'74	'79.2~'80	'90.8~'91.4
가격변화(\$/Bbl)	3.0 → 11.7	13.3 → 30.3	13.1 → 37.0

- 향후 유가 전망

- '04.6월 현재 Dubai油 가격은 배럴당 약 33\$선을 유지 (5.17일 36.2\$/Bbl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소폭 하락세)
- 3차 오일쇼크 가능성(?) → 역사적으로 석유위기는 공급물량의 실질적 감소를 동반하였으나, 최근의 경우는 석유 수급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
- 「원유가격 35\$시대」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수차례 반복 예견된 바 있고, 국내의 전문가들은 29~31\$대를 기준치로 전망 → 정치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가능

III. 국제 석유수급의 경직성

- 세계 석유의 확인 매장량과 가채년수

구분	미주	유럽·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전세계	OPEC	Non-OPEC
매장량 (억Bbl)	1,485	975	6,856	774	387	10,447	8,190	2,287
생산량 (백만B/D)	21.3	16.2	30.0	8.0	8.0	74.0	28.2	45.7
가채년수 (년)	19.1	17.0	92.0	27.3	13.7	40.6	82.0	13.7

- 국제 석유수급의 특성

- 석유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자원이며, 가채 매장량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여,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략원유 비축을 통하여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음
-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중동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중동 산유국의 공급가격 결정에도 반영되어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됨(Asian Premium)

- 중국의 석유 수요급증과 영향

▽ 전세계 석유소비 증가율 대비 가파른 상승세

- 전세계 석유소비 증가율은 지난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평균 1%선을 유지
- 그러나, 올해 중국은 지난해 보다 약 10% 이상 원유수입 및 소비가 증가하여 전세계 석유 소비량 중 약 7.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0년간 비슷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04년 현재 중국의 석유소비량 약 680만B/D

SEMINAR


√ 중국의 석유 수요급증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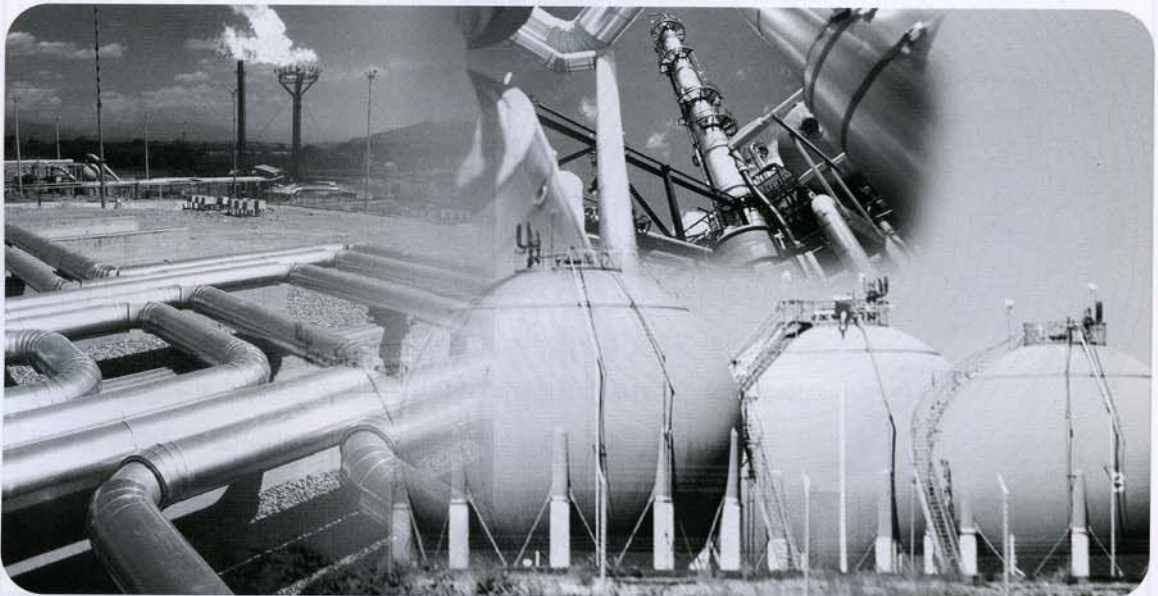
-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 추이
- 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은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의 비중이 17%에 불과하여 자체 생산량으로 수요를 충족시켰으나, 경제성장 가속화로 지난 93년 이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
(현재 세계 2위의 원유소비국, 세계 5위의 원유생산국)

√ 예상되는 파급효과

- 일부에서는 중국이 독자적 에너지 확보에 주력하면서 중동 및 카스피해 산유국과 협정을 맺어 석유와 무기를 거래하거나, 독자적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해군력 증대에 나설 경우 미국과 중국간 안보 위기가 유발될 것을 우려
- “아시안 프리미엄”을 심화시켜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높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며, 석유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중국의 취약한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위험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IV. 향후 대책

- 자주개발 원유 확보를 통한 자원자립도 제고
- 에너지 가격 급등락에 대한 시장기능 강화
- 에너지 소비절약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의 전환 



조물주가 빠뜨린

유일한 창조물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찾아 보기란 힘들다. 간식으로 먹는 과자봉지에서부터 시작해 업무를 보는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및 우주선에까지 플라스틱은 우리 주위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미처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 시티'에 살고 있는 것이다.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할 때, 유일하게 빠뜨린 물질이 플라스틱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 어디서든지 플라스틱을 만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은 1868년 미국 J. W. 하이엇이 상아로 된 당구공의 대용품으로 발명한 셀룰로이드라고 한다. 그 뒤로 많은 발전을 거쳐, 채 150년도 안된 역사를 가진 지금 우리 곁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소재로 되어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플라스틱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성능을 좋게 만드는 등 즉, 최보다 강한 플라스틱 같은 복합재료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같은 것은 탄소섬유와 고분자 수지의 복합재료로서 섬유가 플라스틱과 만나 강철보다 단단해지는 소재로 변하고, 이는 현재 자동차, 우주항공기 및 비행기, 건축 내장재, 스포츠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선진외국의 경우 이렇게 개발된 복합재료가 재료시장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플라스틱 및 고분자에 혼합한 복합 재료들의 장점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그 혼합비율과 효율적인 조합에 의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타나곤 한다.

즉, 복합재료라 함은, 크게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소재의 강도를 높이고,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건축재료인 콘크리트나 과거의 진흙에 짚을 섞은 토담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비단 섬유뿐만 아니라 카루입자(분체)나 작은 조각파편을 고분자 수지와 혼합하여 소재의 특성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이는 분체공학의 한 분야로서도 최근 주목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은 개발된 이후 이 지구상의 곳곳에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결정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자재료의 측면에서는 쓸모없는 소재였다. 하지만, 최근 플라스틱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속 분체입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혼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개발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목분(木粉, Wooden Powder)을 이용한 복합재료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이제까지 폐기물로 처리되던 건축자재를 파쇄한 쇄성물 또는 톱밥 등을 이용하여, '나무처럼 보여도 나무는 아닌' 목재 대체 복합재료의 상품화로 산림자원의 보호, 환경친화적 그리고 내구성, 내열성 등이 강한 고품질의 제품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합재료의 개발이 왜 필요한가는 다음의 예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우주 왕복선의 경우 무게를 1kg 줄이면 전체 비용을 4천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민간 항공기의 경우 1kg 감량에 1백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우주 항공 시대를 맞이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이때 복합재료의 중요성은 더욱더 각광 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분체입자를 이용한 복합재료는 토목 건축 분야에서 신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데, 교량이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시멘트를 덧칠하는 것에 비해 수 배 내지는 수십 배의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것도 있다. 따라서, 분체입자가 기존의 폴리머, 플라스틱과 더불어 사

용한다는 것은 신소재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나와있는 재료들에 특별한 기능을 부여 받지 않은 분체 입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혼합시켜, 성형 공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더 나은 유를 창조하는 기술 집약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21세기는 기술 프론티어 시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소재들이 개발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복합재료와 관련된 분야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황금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는 분야로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복합재료라는 분야가 생소하고 낯선 분야이긴 하지만 'Kisti 과학향기'를 읽는 독자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흥미를 기대해 본다. ♡

(출처: <http://scent.kisti.re.kr>)



용역명 : 지방분권화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

지방은행의 존립근거와 역할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지난해 대구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중 김석진 경북대학교 교수가 작성한 제3장 『지방은행의 존립근거와 역할』에서 제4절의 내용을 정리·요약한 것입니다.

1. 신용경로와 지방은행

통화당국의 긴축재정정책 실시로 은행의 신용공급 여력이 감소할 경우,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은행의존적 차입자는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산업구조의 차이 등으로 은행의 신용경로는 지역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신용경로에 있어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함을 뜻한다.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시중은행은 신용공급을 감소시켜야 할 경우 정보 비대칭이 심한 차입자에 대한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근접성이 떨어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획득 비용이 대규모 상장기업이나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경우보다 높다. 따라서, 은행 신용경로의 존재로 증폭된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자금압박이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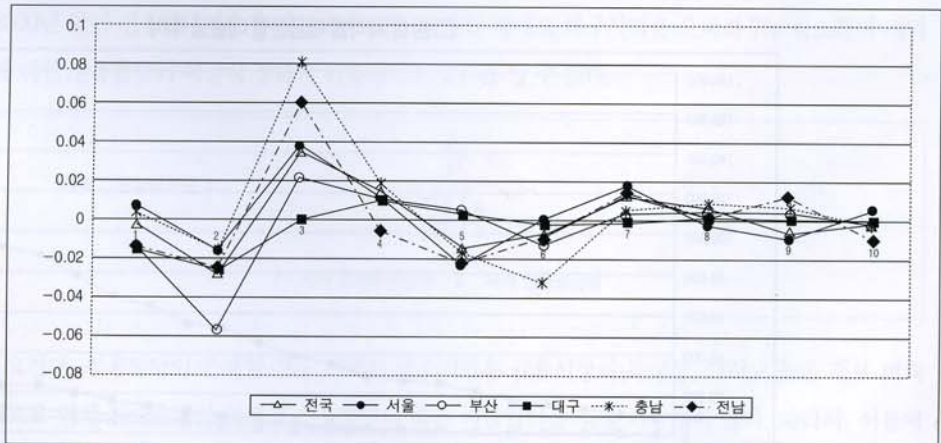
그리고 부의 축적 수준이 낮으면서 경기변동에 쉽게 노출되는 지방의 은행은 그렇지 않은 지방의 은행보다 높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지역 지점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본점에서 감시·감독하는데 따른 비용이 크며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 또한 크기 때문에 지역적 차이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다. 본점이 지점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감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비용은 전국형 금융기관의 범위의 비경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국형 금융기관은 정보생산이 필요한 지역기업에 대한 관계지향적 대출(relationship-based lending)보다는 금융시장에서 비교적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대규모 상장 기업에 대한 거래지향적 대출(transaction-based lending)을 선호하게 된다.

[그림 4]는 통화정책 변동에 대한 지역별 대출금의 충격반응곡선을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model: VAR)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지역별 대출금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연보」를 참조하였다. 한국은행 대출금 한 단위 표준편차 감소에 대한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금의 반응을 보면 서울지역은 전국적 반응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은 다소 상이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대출금의 감소는 은행의 대출 가용자금을 감소시키는데, 서울지역은 그 감소폭이 대구와 부산에 비해 작다. 또한 서울의 대출금이 1기간이 지난 후 바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구는 2기간이 지난 후 증가하며 그 속도도 매우 느리다. 이는 대구에 미치는 통화정책 변화의 충격이 서울과는 다를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산 역시 서울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상승폭은 작다. 충남과 전남은 부산에 비해 그 감소폭이 적은 반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요컨대, 통화정책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확일적 통화정책으로 특정 지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은행 신용경로가 존재할 경우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은 보다 은행의존적인 지역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특정 지역의 자금압박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래지향적 관계를 통해 단기적 안목을 가진 시중은행보다는 지역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은행이 필요하다.

[그림4] 한국은행 총대출금 감소에 대한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금 변동



2. 신용할당과 지방은행

은행은 대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자금의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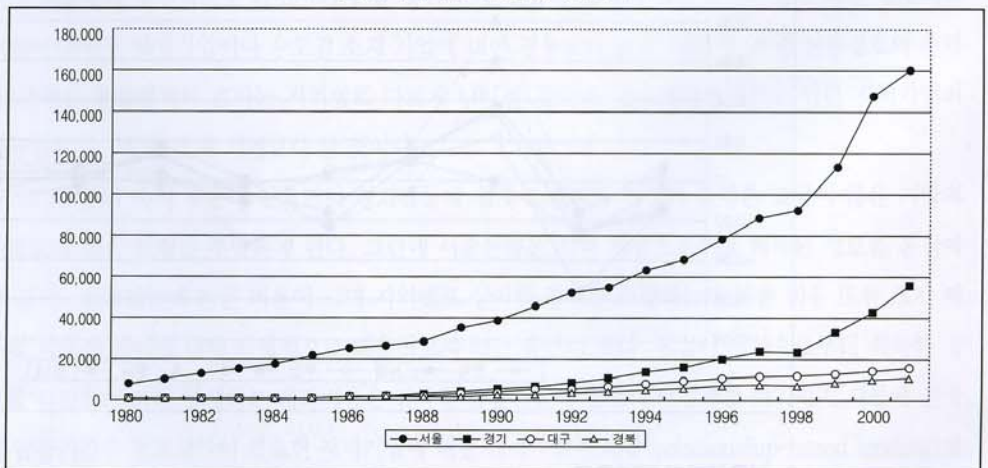
규모 조절이라는 비가격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신용위험을 회피하고 대출자산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자금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금리의 상방 경직성으로 인해 가격기능이 정지되고, 비가격기구인 신용할당에 의존한 대출정책이 실시된다.

은행의 금리 적용에 대한 내부 규정은 자금수요자 모두를 그 위험도에 따라 정확하게 심사하고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세분화할 수 없으므로 내부 규정에 의한 금리 조절 자체가 불완전 가격차별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같은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금리 탄력적인 자금수요를 보이는 반면, 비중심지에 위치한 지역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외의 대체적 자금조달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금리 비탄력적 자금수요를 나타내므로 신용할당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은행의 자금 예탁자가 바로 대출 고객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에 대한 대출 결정은 곧 은행 예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규모 우량기업과 긴밀한 고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금 확보 및 자산 운용에 따른 잠재적 수익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우량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할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업과 고객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존의 고객은 우대되고 새로운 고객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자금을 배분받게 된다. 지역 중소기업은 대규모 전국형 기업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이 크므로 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 인색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용경색기에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그림 5]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금 추이



[그림 5]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지역별 대출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대출

금에 비해 대구·경북지역 대출금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켜 지역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은행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량기업이나 정보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대해 대출에 있어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예금유치에 큰 기여를 못하거나 정보생산비용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할당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은 지역기업의 정보에 대한 근접성이 낮으므로 비가격기구에 의존한 지역별 신용할당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지역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표 1〉은 지역간 신용할당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신용할당지수는 아래 식 (1)과 같이 계산한다. 지역 신용공급량은 특정 지역에 대한 예금은행 대출금을 사용한다. 1990년 전국 평균 신용할당지수가 0.082인데 비해, 서울지역은 0.172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반면, 대구지역의 신용할당지수는 0.090, 부산지역은 0.082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 광역시인 이들 지역에 비해 경북과 경남의 신용할당지수는 더욱 낮다. 경북의 1990년 신용할당지수는 0.036, 경남은 0.052로 경북지역은 전국 평균의 약 44%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2001년까지 지속되고 있어 예금은행 대출금의 지역간 신용할당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신용할당지수는 서울지역이 0.149로 전년도 0.147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대구와 부산지역은 각각 0.084와 0.057로 각각 감소하였다. 서울지역이 2000년 들어 신용할당지수가 전년대비 12% 증가할 때에도 대구지역은 오히려 7% 감소하여 지역에 대한 신용할당이 여전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text{지역 신용할당지수} = \frac{L_i}{P_i} \div \frac{\sum_{k=1}^n L_k}{\sum_{k=1}^n P_k} \quad (1)$$

P : 지역 경제활동인구, L : 지역 신용공급량

요컨대, 신용할당이 존재할 경우 지역의 중소기업은 금융시장의 특성상, 그리고 높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차별적 신용할당에 따른 자금압박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감독하는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은행이 필요하며, 이들 기업은 지역밀착적 지방은행과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고객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원활한 차입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 지역간 신용할당 추이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남
1990	0.082	0.172	0.082	0.090	0.036	0.052
1991	0.081	0.167	0.080	0.087	0.037	0.055
1992	0.080	0.168	0.075	0.085	0.038	0.053
1993	0.077	0.150	0.072	0.089	0.041	0.054
1994	0.077	0.150	0.070	0.089	0.043	0.055
1995	0.076	0.141	0.068	0.086	0.045	0.058
1996	0.076	0.143	0.067	0.087	0.044	0.058
1997	0.077	0.147	0.066	0.086	0.044	0.046
1998	0.073	0.149	0.057	0.084	0.039	0.057
1999	0.073	0.149	0.056	0.073	0.037	0.056
2000	0.077	0.167	0.057	0.068	0.037	0.054
2001	0.076	0.156	0.063	0.064	0.036	0.052

3. 지역경제와 지방은행

한국은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지방금융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므로 금융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지방금융의 낙후로 지방금융기관이 지방경제에 대한 효율적 자금중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지방경제가 낙후되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생산과 원활한 자금지원은 지방은행이 담당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

지방은행은 대출금의 80% 이상을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민에게 지원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주요 자금조달원이다. 전국형 은행이 높은 정보산출 비용으로 인해 대출을 꺼리는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지역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수집하고 지역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재무제표와 같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대출 의사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얻은 정성적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대출담당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대출 의사결정은 기업 경영자의 인격이나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대출 담당자의 판단에 보다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형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담당 직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지역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때 본사의 통제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의 직원과 본사 의사결정자 간에 존재하는 대리문제도 전국형 은행이 지역 중소기업과의 대출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지방은행은 의사결정 중심이 정보의 수집 지점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지역 기업가나 지역민들

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시중은행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획득하기 어려운 정성적 정보의 전달과 처리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은행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직접적 면담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므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한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시중은행보다 우위에 설 수 있으며, 은행과 기업간 결속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지향적 경영을 통해 실물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미약한 신호전달 능력도 지방은행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지역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자본시장에서의 신호전달 능력이 미약하여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지역의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대규모 기업과 같이 객관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정보 비대칭 정도가 심하다. 대형 시중은행은 재무제표와 같은 규격화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한 대출 의사 결정을 선호한다.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은 유통시장의 발달로 보다 높은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투자의 시계가 짧아 단기투자 중심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 정보생산을 통해 기업이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장기적 안목에서 자금 공급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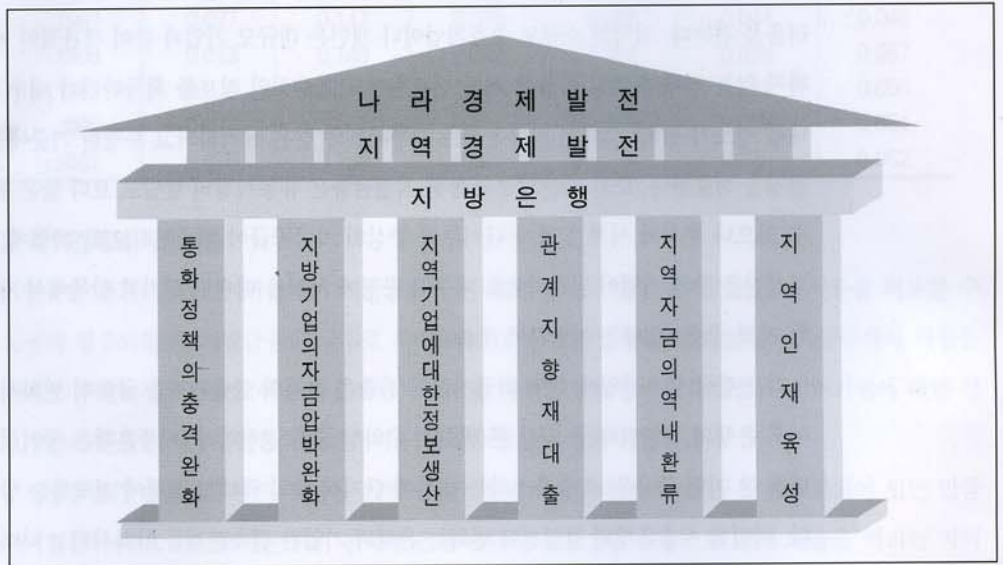
최근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은 은행의 금융관행을 급속히 변화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전략 중 가장 큰 변화는 수익성 중시 경향이다. 시중은행은 장기적 거래관계에 기반을 둔 기업 금융을 크게 축소하는 대신에 단기적 수익 극대화 실현에 전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중은행의 경영전략 변화는 은행과 기업간 결속관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금융과 실물의 연계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의 단기적 수익 극대화 전략은 자금조달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기업의 자금 확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은행은 지역연고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금융시장에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금융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직접금융시장이나 전국형 은행에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인큐베이션 बैं킹(incubation banking)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지방은행은 지역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한다. 나아가 지역에서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 내에 환류함으로써 지역민의 이익으로 귀속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활동의 핵심적 중추 기능을 수행할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기능도 하게 된다.

끝으로, 지방은행은 금융세계화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금융 세계화는 세계적 금융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가적 범주의 금융시장 기능을 해체하는 한편, 지방 은행을 이러한 금융네트워크의 다원적 중심을 형성하는 일차적 금융기관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은행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금융세계화는 본질적으로 자금순환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나 지방은행은 지역자금의 환류기능을 통해 금융세계화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내적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림 6] 지방은행의 존립근거와 역할



[그림 6]은 이러한 지방은행의 필요성과 역할을 요약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 내에 근거지를 두고 지역경제와 밀착되어 발전하므로 지역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특히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및 지역민들에 대한 지방은행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은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며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연구원 소식



개원 14주년 기념 및 제170차 월례세미나 개최

지난 6월 24일(목) 18:00~20:00까지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원 14주년 기념 및 제170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두열 SK(주) 상임고문이 「고유가 시대의 기업경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145차 이토회 개최

지난 7월 10일(토) 오후 3시 앞산에서 제145차 이토회를 가졌다.

산학리뷰, 웹진으로 전환!!!

정보교류의 인프라와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전달의 적시성 제고, 쌍방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산학리뷰를 인쇄물 형태에서 웹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04년 8월까지의 기존 인쇄물로 발행하며 9월부터는 완전히 웹진으로 발행할 예정이므로, 현재 산학리뷰를 구독하시는 분께서 웹진 형태의 산학리뷰도 계속 구독하시려면 본원으로 반드시 이메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홈페이지 및 웹진을 제작 중에 있으니 좋은 의견 있으시면 홈페이지(www.uri.or.kr) 게시판 또는 이메일(uri@uri.or.kr) 등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동정



■ 김수원

김수원 (주)강산 E&C 회장은 6월 22일 환경부와 한국수도협회가 주관하는 "상수도시설기준 개정" 집필위원으로 참여

- 29일 2년 임기의 대구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위원장)으로 재위촉
- 7월 5일 ~ 6일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시설운영평가에 2004 지방상수도사업 경영평가위원으로 참여
- 8일 2년 임기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부위원장)으로 재위촉
- 12일 제주도 산업정보대학에서 영남건설기술교육원이 주관, 제주도지역 건설기술자(200여 명)를 대상으로 "21세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이란 제목으로 특강



■ 김재근

김재근 계명문화대학 식품영양조리과 교수는 7월 1일 ~ 3일까지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9회 전국 대학교수 선교회에 참석

- 8일 경남정보대학에서 개최된 한국식품영양학회의 학술심포지움 참석 및 감사패 수여
- 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Learning 심사위원 자격으로 연수(부산)
-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식품산업기사 시험위원으로 위촉
- 12일 ~ 15일 2004년도 영양사 국가시험 문항개발위원으로 위촉받아 신규문항개발 및 심사작업 실시



■ 윤종용

윤종용 삼성전자(주) 부회장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

- 미국의 격주간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 25인' 가운데 5위에 선정



■ 이병찬

이병찬 계명대학교 교수(산업경영 연구소 소장)는 6월 2일 ~ 3일까지 영남대학교 국제관에서 한국로고스 경영학회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학술재단 ISTEDOD 와 공동으로 개최

된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rastructure Practices, Core Practices and Performance in Total Quality Management" 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

• 7월 1일 ~ 3일까지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전국대학교 교수 선교회합회(회장 : 이병찬) 주최로 "복음으로 대학을 새롭게" 라는 주제로 제19회 전국대학교수 선교회회를 개최



■ 조만현

조만현 동우씨엠(주) 대표이사는 국세체납, 과소신고, 허위신고, 탈세 세무를 방지하고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전국종합용역업성실신고위원회에 가입

•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우호증진을 위해 매월 산악회 행사 개최 및 6월 26일 범물동 용지봉 등반 실시, 또한 국토사랑 청결운동에 동참

• 동우씨엠(주)가 관리 중인 "칠곡화성그랜드파크"는 7월 13일 매일경제신문사 등 5개 기관이 주관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수상



■ 조봉진

조봉진 한국창업보육협회장(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한국창업보육협회 산하 보육센터장과 보육매니저로 구성된 39명의 연수단을 인솔, 7월 18일부터 12일간 유럽 선진국의 성공사례 연구와 창업보육실무 연수 실시



■ 조재룡

조재룡 (주)한국중소기업컨설팅

대표이사는 6월 29일 가톨릭대학 창업강좌 실시

- 7월 9일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경영컨설팅 실시
- 7월 14일 포항 선린대학 창업강좌 실시



■ 홍철

홍철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신임원장은 7월 28일 대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조해녕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감



■ 황대현

황대현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6월 12일 대구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0회 구청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참석, 인사 및 격려

• 27일 학산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달서구단학기공연합회 주관 제5회 달서구 단학기공경연대회에 참석, 인사 및 격려



■ 김극년

김극년 본원 고문(대구은행장)은 6월 25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지역금융활성화기획단」의 해외 은행 벤치마킹 등에 관한 「지방은행 협의회」에 참석



■ 최용호

최용호 본원 명예원장(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6월 5일 이한구 국회의원을 만나 대구경제의 현안 과제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 17일 한국경제학회 이사회 참석
- 19 ~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제49차 ICSB(국제 중소기업협의회)세계대회에서



회원동정

"Technological innovation of venture firms in partnership with I-U-G networks"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케냐의 나이로비시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이석조 대사로부터 한·케냐 수교 40주년의 발자취와 통상관계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



■ 구정모

구정모 본원 부이사장(대구백화점 대표이사)은 7월 8일 제주감귤유통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제주하우스 감귤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제8집", 2004. 2. 29
- 공정거래위원회, "에스크로(ESCROW), 무엇이며 왜 필요인가?", 2004. 7
- 대구상공회의소, "2004. 3/4 대구지역 기업경기전망", 2004. 6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구조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 2004. 6. 9
- 삼성경제연구소, "국내산업의 재도약 방안 -0.5차 더하기-", 2004. 6. 16
- 삼성경제연구소, "도시 발전과 기업의 역할", 2004. 6. 23
- 삼성경제연구소, "기업가정신의 약화와 복원방안", 2004. 6. 30
- 삼성경제연구소, "투자부진 장기화 가능성과 해법", 2004. 7. 14
- 삼성경제연구소, "격동기, 사람이 경쟁력이다 -글로벌 사 7대 트렌드-", 2004. 7. 21
- 신용보증기금, "2003 연차보고서", 2004. 5. 31
- 한국금융연구원, "소액전자지급시장의 경제학적 이해", 2004. 6
- 한국금융연구원,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 2004. 6
- 한국은행,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2004. 6. 12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연구센터, "금융부문의 경쟁력 평가와 발전과제", 2004. 4

정기간행물

-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소식지", 2004. 6. 21
- 경상병원, "경상병원보", 2004. 여름호
- 경북테크노파크, "KTP헤드라인", 2004. 5 · 6
- 경제풍월, "경제풍월", 2004. 7
- 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훈련정보", 2004. 여름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포럼", 2004. 5 · 6
- 대구경북건축직물협동조합, "섬유직물소식", 2004. 7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달서", 2004. 7
- 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 "산학협력소식", 2004. 6. 창간호
-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 경북경제동향", 2004. 5. 6
- 대구은행, "대은행제리뷰", 2004. 3 · 4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2004. 7
- 산학연중합센터, "산학정21", 2004. 7. 5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 2004. 5. 6
-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2004. 6. 7
- 증권거래소, "주식", 2004. 6. 7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2004. 6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Corporate Governance Review", 2004. 3 · 4
- 한국무역협회, "무역", 2004. 7
- 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과 미래", 2004. 5/6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 기술과 경영", 2004. 7
- 한국산학정보센터, "레이저기술", 2004. 7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산학협동 인포", 2004. 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2004. 6, 7
- 한국선물거래소, "선물시장리뷰", 2004. 6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해외경제", 2004. 7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DYETEC VISION", 2004. 6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 · 경북지역 경제동향", 2004. 5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4. 6
- 한국음식업중앙회, "뚝배기", 2004. 7
- 한국토지공사, "토지", 2004. 5
- (주)효성, "토프론 섬유", 2004. 7 · 8

연구원 소개 및 회원가입 안내

■ 연혁 및 현황

1990년 6월 지역의 학계 교수, 기업체 경영자, 기관 단체 장이 산학협동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자는 순수한 취지로 산업자원부의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창립하였으며, 현재 4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원 장 : 최만기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사업

- 산학협동 세미나 개최
- 산업시찰 실시
- 산학리뷰 발간
- 조사분석, 기술개발 연구
- 각종 개발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수행
- 경영자 및 임직원의 교육훈련
- 회원친선 교류사업

■ 회원가입 자격 및 회비

- 학계회원 : 국내외 학계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입회비 5만원, 연회비 7만원)
- 업계회원 : 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연회비 80만원)
- 유관기관회원 : 금융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연회비 80만원)
- 유관개인회원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임원으로
로서 개인자격(입회비 5만원, 연회비 15만원)
- 영구회원 : 회비 일시납부 회원 (개인 100만원, 기관 1000만원)

■ 연구원 거래은행 계좌

- 대구은행 : 018 - 04 - 304943 - 001
- 예 금 주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본 연구원에 납부 또는 지원하시는 회비 및 출연금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연말정산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 502-82-12124).

■ 원고 및 광고게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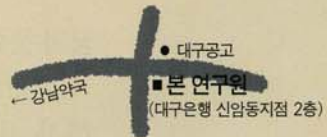
매월 2,500여 부를 제작·배포하는 본 산학리뷰지는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인 원고 기고 및 광고게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연구원 사무국 T.(053)959-2861~2)

■ 2004년 7월호 (통권 159호)

- 간 별 : 월간
- 등 록 번 호 : 대구라01089
- 등 록 일 : 1998년 6월 2일
- 발 행 소 :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
- 발 행 일 : 2004년 7월 31일
- 발 행 인 : 정성진 (국민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 정인상 (경북대학교 교수)
한성덕 (대구대학교 교수)
- 편 집 위 원 : 김능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장)
김영재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준 (영남이공대학 교수)
박규진 ((주)애드밸리 대표이사)
박진향 ((주)멀티애드메이저 대표이사)
이동형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황남성 (영남이공대학 교수)
조정일 · 임재현 · 최영애 (상임연구원)
- 기획·편집 : 멀티애드(053-751-6562)



社 團 産 學 經 營 技 術 研 究 院
法 人 産 學 經 營 技 術 研 究 院
URI UNIVERSITY-INDUSTRY RESEARCH INSTITUTE

701-814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3동 164-1번지
TEL.(053)959-2861~2 FAX.(053)959-2860
http://www.uri.or.kr
e-mail : uri@uri.or.kr

1년 365일

오직 지역만 생각합니다.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 해 온 대구은행은
한결같은 마음과 변함없는 정성으로
항상 지역만 생각하는 은행이 되겠습니다.